

Dubai유, 2일 연속 하락 34.94달러

석유공사, 10일 이동평균가격 35달러 근접 ... WTI는 41.59달러 급상승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 현물가격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하락 하루만에 급반등한 가운데 Dubai유는 34달러대로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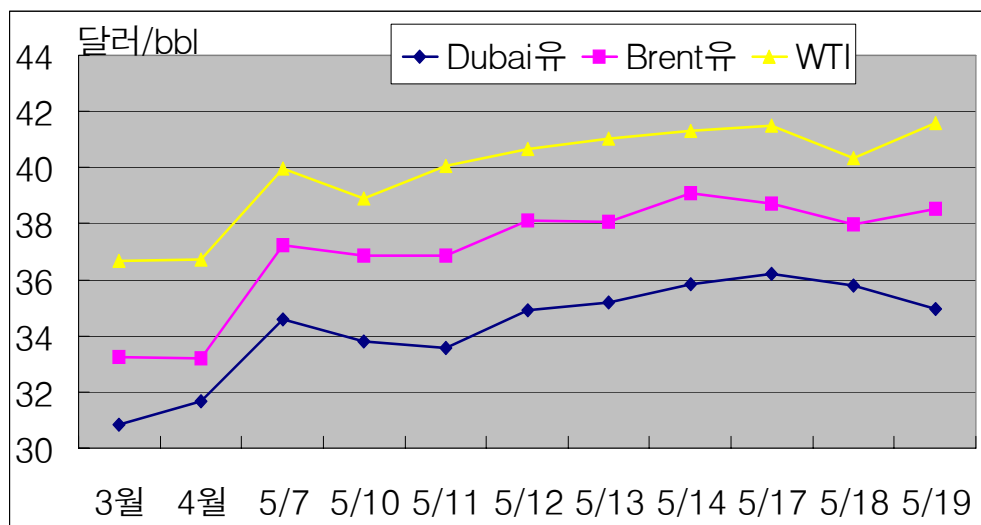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5월19일 현지에서 거래된 WTI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무려 1.24달러 오른 배럴당 41.59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였던 5월17일 41.49달러를 2일만에 넘어섰다.

북해산 Brent유도 2일 동안의 내림세를 접고 0.58달러 상승한 38.55달러에 장을 마쳤다.

반면, 시장 소식이 하루 늦게 반영되는 중동산 Dubai유 현물가격은 전날보다 0.84달러 하락해 일주일만에 34달러대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Dubai유의 10일 이동평균가격은 34.94달러로 상승해 정부의 컨틴전시 프로그램 3단계 기준선인 35달러에 바짝 다가섰다.

선물시장에서는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6월물 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 가격이 각각 0.96달러, 0.95달러 오른 41.50달러와 37.90달러에 거래됐다.

국제유가 추이(2004)



한편, 유가상승은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주간 석유 재고 조사 결과 지난주 원유 재고가 전주대비 110만 배럴 감소하고 부시 대통령이 일각에서 요구한 전략비축유(STR) 방출요구에 반대입장을 표명하자 하절기 석유제품의 공급차질 우려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EIA의 조사에서 휘발유 재고는 120만배럴 증가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수급불안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 고유가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화학저널 2004/05/21>